



1



2



3

1 용품별 특징을 살린 재밌는 문구가 적혀 있는 '배민'의 목욕세트. 2 노랑 브랜드의 한글과 영어를 섞어 만든 '러브시티' 맨투맨 티. 3 공감감을 불러일으키는 '배민'의 노트 표지.

젊음과 위트, 모두 담을 수 있는 완벽한 한글

트렌드 따라잡기 한때는 한글로 된 간판을 길거리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용하던 외국어 간판마저 한글로 바꿀 만큼 한글이 대세다. 한글을 디자인의 요소로 활용하는 기업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 외면 받던 한글은 어떻게 마케팅 대세가 됐을까. 글=강은비 / 사진=우아한형제들·노양·이상봉·무진장 카페

한글을 활용한 디자인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촌스럽게 여겨졌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신촌, 강남, 이태원 등 유행에 민감한 장소에서는 한글로 표기된 간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유명한 해외 패션 브랜드에서도 한자나 히라가나, 가타가나만이 디자인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근래 들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한글 열풍이 불고 있다. 발음하기 어려웠던 외국어 간판들을 한글로 교체하고 한글을 활용한 디자인 상품도 앞다퉈 출시되고 있다. 한글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름다운 한글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

한글은 유네스코에서 우수한 과학성을 인정받아 199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완벽한 문자'다. 독창적인 한글의 우수성은 전 세계 언어학자들도 인정할 정도다. 이토록 위대한 문자이지만, 정작 우리는 한글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웬지 모르게 무겁고 촌스럽게 생각됐기 때문이다. 이는 세련되고 고급져 보이는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으로 이어졌다. 많은 국내 브랜드와 유행하는 노랫말을 들여다보면 외래어와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었다.

한글의 고전적인 이미지를 깨는 데 다양한 한글 서체가 생긴 것이 한몫했다. 다채로운 영어 서체와는 달리 한글은 고딕과 명조, 궁서체 등 격식 차린 올드한 느낌의 글씨체가 많았다. 그러나 요즘 글꼴 별로 개성이 뚜렷한 한글 서체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 기업과 지역에선 마케팅의 일환으로 제작한 글꼴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한글 서체도 많아졌다. 덕분에 한글이 고루했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캘리그래피(손글씨)도 이미지 변화에 큰 역할을 했다. 한글이 가진



4



5

4 이색적인 표기법으로 입소문을 탄 이태원의 '무진장' 카페. 5 받으면 비워야할 것 같은 문구가 적힌 배민의 '맥주편' 세트. 6 직접 디자인한 한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이상봉 디자이너.

조형미와 아름다움이 디자인의 요소로써 무궁무진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알파벳과는 다르게 초성·중성·종성으로 구성된 한글은 글자별 강약 조절이 가능하고 단어 뜻에 따라 감정 표현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가령 '르'를 느낌대로 흘러 쓴다면 꽃의 아래 받침인 'ㅈ'을 꽃잎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쓰는 이의 느낌대로 변화가 가능하다. 한글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반해 한글 손글씨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젊은 세대들의 인식 변화도 크다. 10~20대들 사이에선 직접 쓴 글씨를 인증하는 것이 유행이다. 자신의 손글씨 일기나 좋아하는 문구를 필사하고, 때론 강의 내용을 필기해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린다. 대중에게 자신의 글씨체를 뽐내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해외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한글은 날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한글을 사랑하는 몇몇은 직접 한글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해 자신의 온라인 채널에 올려 한글을 세계인들에게 전파하고 있을 정도다. 한류 열풍으로 시작됐지만 한글 자체를 디자인적으로 완성도 높은 언어로 여겨 한글을 공부하는 이도 크게 늘고 있다. 외국인들이 말하는 한글의 매력은 글씨 모양이 아름답고 때론 그림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한글을 공부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외 한글을 배울 수 있는 한글학교도 많이 생겨났다. 이 기세라면 외국에서 현지인과 한국어로 간단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젊은 감성부터 독특함까지 담은 한글

최근 한글이 가진 디자인적 아름다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글의 '디자인적 가치'를 이미 알고 있는 국내외 패션 업계에서는 한글을 이용한 아이템들을 출시하는 추세다. 나이키는 에어조단 서울 운동화에 '화합과 진전' '서울'이라는 문구를 넣어 한정판으로 선보였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미국 대표팀 유니폼을 공개한 할프로렌의 티셔츠에는 '평창'을 새겨 화제가 됐다. 프랑스 의류 브랜드인 자크앤블레르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만 한정적으로 한글이 적힌 고가의 반팔티를 선보였는데 여름이 되기도 전에 완판 되는 기록을 세



6

웠다. 배우 유아인 티셔츠로 유명해진 국내 디자인 브랜드 노양도 있다. 당시 없어서 판매하지 못할 정도로 인기였던 이 티셔츠에는 'SEOUL' 'NEWYORK' 'TOKYO' 등의 도시 이름을 한글과 영어 조합으로 표기했다. 한글 자음을 알파벳 안에 디자인적으로 녹여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한 이 옷은 많은 패피(fashion people)들에게 사랑받았다. 한글을 패션에 접목해 전 세계를 진작부터 놀라게 한 한글 패션의 선구자 이상봉 디자이너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다양한 소품에 한글을 디자인해 문화유산인 한글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요즘에는 거창한 뜻의 외국어나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 신조어를 오히려 촌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바로 몇 년 전만 해도 거리의 간판은 외국어로 점령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한 번에 읽기 어려운 'CHICOR' 'OSULLOC' 'Tous les Jours'와 같이 영어로 표기된 간판이 판을 쳤다. 한국어 간판을 볼 수 있던 곳은 인사동이 유일무이했을 정도다. 그러나 한글만의 감성과 독특하게 표기해도 가독성을 잃지 않는 한글의 우수성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다. 한글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ㅏㅑㅓ' 뽕집과 자음으로 표기한 'ㅗㅛㅕㅗ' 카페가 바로 그곳이다. 두 곳 모두 한글을 암호처럼 낯설게 표기했을 뿐 별다른 디자인과 로고가 없다. 하지만 심플하고 멋스럽게 표기한 한글 간판으로 SNS에 줄지어 인증 사진이 올라온다. 한글 간판 인증 사진 역시 한글 유행을 불러일으킨 일등 공신이다.

따뜻하고 재미있는 문구가 적힌 소품들도 이목을 끌고 있다. 노트·달력·핸드폰 케이스 등에 '혼자여도 잘 챙겨 먹자'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오늘도 수고했어'와 같은 따뜻한 문구를 적어 부족했던 감성을 한글이 채워주고 있다. '곰미남' '나카라 일터로, 나에겐 빛이 있다' 등 해학적인 표현으로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모두 평범했던 소품이 한글과 만나 아이디어 상품이 됐고, 주소비 층인 20~30대의 구매 코드와 맞물려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소중한 문자, 한글. 어디에 있어도 이 질감이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 표현되는 한글이 보여줄 다양한 변화와 가능성이 기대된다.